

中國의 森林과 원숭이

和田一雄

하늘에서 보는 中國大陸의 巨大함과 分斷된 森林엔 그저 놀라움 뿐이다. 그것은 數千年에 걸친 農耕과 人口爆發의 結果라고도 하나, 貧弱한 樣相을 보고 野生動物, 특히 中·大型哺乳類의 걱정이 앞선다.

華中の 穀倉地帶에 位置한 安徽省에는 三國志의 時代부터 논과 밭이 발달되고 잦은 戰亂으로 논밭만 만아니라 마을과 산도 荒廢해 졌을것은 뻔한일.

그러나 現在 省都의 合肥(허페이)에서 南下하여 長江(楊子江)을 건너면 二次林이긴 하나 숲이 보여 마음이 놓인다. 숲이 없으면 원숭이도 없을 것이니까.

山岳觀光으로 有名한 照葉·落葉廣葉樹林에 덮인 黃山(海拔 1,841m)의 숲과 動物은 黃山管理局에 의해 保護되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 調査에는 適合한 곳이다.

黃山風景保護區內에는 몇군데의 農村聚落이 있고 農民의 生活이 있다. 그들은 直徑 約10cm以下의 樹木은 火木으로 利用할 수 있지만 그보다 굵은 나무의 伐採는 한그루일지라도 當局의 許可가 必要하며 現在까지 比較的 自然이 잘 保存되고 있다. 周圍의 나무를 사용하고 냇물을 마시고 生活의 雜廢水를 버려도 周圍의 生活環境은 一定하게 維持되어 가고있어 그들의 生活이 自然의 收容能力의 範圍內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最近까지 農民들은 원숭이의 고기를 食用으로하고 뼈는 藥用으로 利用해왔으나. 中國珍貴野生動物保護條例·中國珍貴植物保護條例·環境保護法이 1973년에 계속적으로 制定되어 “원숭이”는 모두 第1·2種保護動物로서 捕殺이 禁止되었다.

廣大한 中國이기에 法律이 나왔다해서 動物이 보호된다고 壯談할 순 없다.

실제로 黃山에서 調査중에 원숭이가 잡혔다는 소

문은 몇차례 들려왔으나 그때마다 當局이 調査하러 갔다는 말은들리지 않았다. “붉은털 원숭이”나 “티벨(西藏)원숭이는 곳에 따라 밭농사를 망쳐 農民들의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日本처럼 猿害를 理由로 大量捕獲을 許可하는 制度가 없다. 밭에 接近하는 원숭이가 發見되기만 하면 農民들이 쫓고, 그뒤는 하는수 없다고 체념하는 상태. 어느쪽이 좋다고 당장에 斷言하기는 어렵지만, 원숭이의 大量捕獲을 制度化하지 않은 中國쪽이 急激한 分布地域縮小을 豫防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어느날 黃山에서 “붉은 털 원숭이”가 大量捕獲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갔다. 작은 대나무 광주리속에 담긴 원숭이이가 길바닥에 6-7마리 놓인 것을 보니 壯觀이기도하고 衝擊的인 구경꺼리이기도 했다. 원숭이 돌리기용의 원숭이로서 한마리가 비싸게 팔리는 것이다. 安徽省野生動物保護協會常任理事의 職靑을 갖고있는 나의 벗이 省當局에다 電話를 한즉 擔當官이 當장 現地로 뛰어와 捕獲된 “붉은 털 원숭이”를 黃山의 適當한 곳에서 山으로 뒤돌려 보냈으며 捕獲한 사람은 依法 處理하였다.

연약하긴하나 中國에 있어서도 自然保護가 人間의 生活을 지키는데 있어 重要하다는 視角아래 차츰 進陞되고 있다. 이와같은 問題에선 世界的으로 뒤져있는 日本으로서도 이웃나라의 움직임에 注目해야 할 것이다.

譯者 註:筆者 “와다 가즈오”씨는 京都大學靈長類研究所助手로 '85년부터 '88년에 걸쳐 中國에서의 研究를 비롯하여 內外의 靈長類研究에 沒頭하고 있는분. 그는 '86년에 發行한 「제니가다 海豹」의 生態와 保護(東海大學出版會刊)의 編輯代表를 맡는등 野生動物保護를 위한 研究活動을 하고있는데 이글은 近着 日本自然保護協會發行 自然保護誌 自然에세이에 실린 것. [珠樹]